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대한한 한국판뉴딜
		배포 일시	2021. 12. 21.(화) 총 3매(본문 2, 참고 1)	
담당 부서	첨단해양교통관리팀	담당자	• 팀장 홍순배, 서기관 최은진, 주무관 김근영 • ☎ 044)200-6141, 044)200-6239, 6241	
	어선안전정책과	담당자	• 과장 안용운, 사무관 이강은, 주무관 조지형 • ☎ 044)200-5550, 044)200-5523, 5524	
보도일시		2021년 12월 22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21.(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골든타임을 잡아라! 해상조난 어선원 구조 빠르고 정확하게

- 바다 내비게이션 체계를 활용한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장치 시범운영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선 충돌, 전복 등으로 조난된 어선원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바다 내비게이션(e-Navigation) 체계를 활용한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장치의 시범운영을 12월 22일(수)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어선사고가 발생하면 어선에 설치된 초단파 무선설비(VHF-DSC)와 같은 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어선의 위치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어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하거나 탈출한 경우에는 어선원의 위치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수색과 구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착용이 편리하고 조난 시에도 위치발신이 가능하도록 손목시계, 목걸이 등의 형태로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장치를 개발 중에 있다. 그리고 이 장치를 연근해어선 7척에 설치하고, 바다 내비게이션(e-Navigation) 선박단말기에 연계함으로써 연안에서 최대 100km 해상까지 어선원의 조난위치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에서 탐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장치(손목밴드 등) → 조난위치수신장치(어선) → 바다 내비게이션(e-Nav)단말기(어선) → 해상무선통신망(LTE-M)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e-Nav) 센터 →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

향후 1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장치의 통신거리, 기상상황별 조난신호 수신율 및 LTE-M 통신망과의 연계 안정성 등을 점검하여 전면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순배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바다 내비게이션 체계를 활용한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장치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해상에 추락한 어선원의 위치를 육상에서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바다 내비게이션 체계가 해상안전은 물론 우리 선원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고, 해군함정 원격 의료지원 등 다양한 곳에도 쓰일 수 있도록 이용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연계 체계

-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장치(손목밴드 등) → 선상 조난위치수신장치 → 바다 내비게이션(e-Nav) 선박단말기 → LTE-M 통신망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e-Nav) 센터 →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수협)

□ 운영 개요도



□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장치 형태

				
구명조끼 부착형	밴드형	목걸이형	고리형	시계형